[공개토론회 초대]

교실 속 고립된 아이들 앞에서
담임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묻습니다



2026 년 11 월 6 일 금요일 오후 7 시 30 분~9 시 30 분

온라인 Zoom 진행 · 무료 참관

▶ 토론회 회원가입 및 참관 신청하기

11 월 3 일부터 11 월 6 일 오후 9 시 30 분까지 신규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토론회 참관 신청도 함께 완료됩니다. 토론회 당일 가입하신 이메일로 Zoom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존 회원의 참관 신청 문의: school.not.hospital@gmail.com wpipainfree.com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한 학생이 어렵게 담임교사를 찾아와 말합니다.

> “선생님, 저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매일 같은 교실에 가는 것이 괴롭다고 합니다.

이때 담임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안전을 살피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교의 도움도 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 “이 학생은 지금 교실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나는 이 아이가 자신의 삶과 배움에 다시 참여하도록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 위기학생을 만나는 담임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함께 묻는 공개토론회를 엽니다.

위기학생 대책, 교실에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의 자살과 자해, 폭력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대책이 강조됩니다. 필요한 보호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학생은 매일 교실에서 생활하고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어떤 아이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지만 그 관계를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어려움을 선별과 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아이가 매일 돌아와 살아야 하는 교실의 관계와 일상은 누가 살필 수 있을까요?

담임교사는 조회와 수업, 쉬는 시간과 학급 활동 속에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학생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학생과 함께 살피고 동료 교사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연결하면서도, 연계 전부터 도움을 받는 동안과 교실로 돌아온 이후까지 학교와 교사가 어떤 교육적 역할을 이어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학생을 도우려던 나는 어떤 담임교사였을까?”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애써 온 송아미 교사의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송아미 교사는 친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학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싫으면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학생의 어려움은 이어졌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질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학생은 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까? 거절을 시도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학생이 바랐던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을까?

이 고민은 교사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 “나는 학생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교사인가, 아니면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는 교사인가?”

담임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배움과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일상에서 함께 하는 교육자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공동체의 규칙을 지도하는 일은 교사의 책임입니다. 그와 함께 학생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교실에서 살아갈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 역시 교육의 역할입니다.

학생을 지키는 교사도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을 돕고 싶어도 수업과 학급 운영, 학부모 소통과 민원 대응 속에서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1 월 4 일 발표한 교사 1,017 명 대상 조사에서 응답자의 82.4%는 위기학생 개입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혼자 감당하는 구조’를 꼽았습니다. 학생을 돕는 일이 교사 한 사람의 헌신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합뉴스 보도 보기 www.yna.co.kr

담임교사에게는 학생을 만날 시간과 동료 교사들이 각자의 관찰과 경험을 나눌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얻은 학생에 대한 이해가 실제 생활지도와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학교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사에게 책임을 홀로 더 지우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사가 학생과 관계를 맺고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교사와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이 무엇을 함께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하는지 묻는 자리입니다.

함께 나눌 질문

- 교실에서 고립이나 자해를 겪는 학생, 또는 학교폭력 상황에 놓인 학생의 경험과 목소리를 교사는 어떻게 듣고 안전을 살펴야 할까요?
- 학생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면서, 학생이 자기 삶과 배움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담임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전문기관과 협력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도 학교와 교사는 학생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 교사의 권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면서, 학부모 민원과 위기학생 지원에 학교가 공동으로 대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실 속 아이들의 곁을 지키는 교사 여러분,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토론회 안내

항목	내용
주제	담임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묻다
일시	2026 년 11 월 6 일 금요일 오후 7 시 30 분~9 시 30 분
진행	온라인 Zoom · 무료 참관
참여	황상민 박사, 조승연 대표, 송아미 교사, 강경희 교사
참관 대상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교육 관계자,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규 회원 참관 신청	**회원가입 및 토론회 참관 신청하기**
참가 안내	신규 회원가입을 완료하시면 참관 신청이 함께 완료됩니다. 토론회 당일 가입하신 이메일로 Zoom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존 회원 신청 문의	school.not.hospital@gmail.com
주최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 토론회 회원가입 및 참관 신청하기

교실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아이가 없도록,

그리고 그 아이의 곁에서 교사도 혼자가 아니도록.

금요일 저녁, 함께 질문하고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